



인터넷주소, 상표출원 급증

- 인터넷 주소(Domain Name)상표출원, 전년대비 5.7배 증가 -

[상표3과 이현재]

인터넷주소(Domain Name)의 상표출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어, 현재 인터넷주소를 등록·사용하고 있는 기업이나 앞으로 등록·사용하려고 하는 기업은 상표출원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에 따르면, '98년 인터넷주소(Domain Name)의 상표출원이 전년동기대비('97년 10건) 5.7배 증가한 57건이 이루어졌다.

특히, 지난 11월과 12월에 48건이 출원됨으로써 최근에 특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엔(UN)의 산하기구로서 특히, 저작권 및 상표권 등을 보호 관찰하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상표와 인터넷주소 등록간의 분쟁관계를 다루는 규범에 관한 내부보고서를 지난 '98. 12. 23 공포했으며, 이 규범은 '99. 2. 26까지 세계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99년 3월 말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규범에 따르면, 앞으로는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타인의 유명상표를 미리 인터넷주소로 등록한 후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또한 기존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인터넷주소의 경우에는 이 규범상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다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인터넷주소를 상표로서 등록을 해 둘 경우에는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인터넷주소를 향한 타인이 등록할 경우, 상표권 주장을 통해 이를 배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주소의 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산원에 따르면 현재 1기관 1인터넷주소(Domain Name)를 허용하고 있으나 상표등록권자에게는 1개의 인터넷주소를 추가로 등록을 허용해 주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현재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인터넷주소로 인한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경우를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의 상표출원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주소의 상표출원현황

년도별	'95	'96	'97	'98
건수	0	5	10	57

한복상표 우리말 출원 쇄도

- 한복시장의 규모증가 반영 -

[상표]과 현성훈]

“예진솔”, “선비마을”, “아사달”, “나들잇별”, “인동초”……

모두 특허청에 출원되어 심사중인 한복상표들이다.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멀쩡한 우리말 상표들도 외래어로 바꾸는 요즘, 한복 만큼은 정겨운 우리말 상표 일색이다.

한복에 우리말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어제 오늘일인 것은 아니지만 예전의 한복 상표들이 단순하고 소박하다면 최근 상표들은 어감

이 부드럽고 세련되어졌다. 과거에는 ‘꽃가마’, ‘신부방’, ‘은마차’와 같이 글방 의미가 통하는 상표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창의성이 돋보이는 조어상표가 많이 출원되고 있다.

한편 IMF 관리체제 이후 1년 동안 내수시장의 침체 및 중견업체의 잇단 도산으로 전체 의류분야 상표출원은 37% 감소한 반면, 한복에 대한 상표출원은 단지 4% 감소에 그쳐 생활복의 보편화 등 한복시장의 규모증가를 반영하고 있다.

특허청 소식

특허청 지식재산대책진정책 추진 폐달 가속화

- 지식재산 유관기관장 초청 간담회 개최 -

[심사조정과 이현구]

김수동(金守東) 특허청장은 ’99. 1. 28(목) 오전 10시 대전정부청사에서 대학총장 10여명, 대덕연구단지 소재 연구소장 60여명 및 특허 디출원업체 지식재산 부서장 20여명 등을 초청하여 ’99년 국정지표인 ‘지식기반의 확충’을 위한 올해의 특허청 주요업무계획을 소개하고 산·학·연간의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유관기관장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고부기기지의 지식재산창출 확대를 통하여 산업경쟁력 제고와 경제재건에 노력하고 있는 기업체, 학계 및 연구기관 관계자를 격려하고 현 정부의 ’99년 국정지표의 하나인 ‘지식기반의 확충’을 위한 올해의 특허청 업무계획을 소개하며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지식기반 확충방안에 대하여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산·학·연간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발특 9902